

## 대필... 재탕 게재... 무임승차... 부끄러운 논문 관행 이제는 사라져야

김병준 교육부총리를 사퇴까지 물고간 논문 재탕과 표절·대필 등 '부도덕한 관행'은 광주·전남지역 학계에 예외가 아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역 학계는 김 부총리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 "관행이었다"고 변명하는데 분노하면서 아직도 남아있는 부끄러운 논문관행을 하루빨리 근절시켜야 하며, 대학 및 학회들이 감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광주·전남 지역 학계에 현재까지 가장 빈번한 '부도덕 논문'은 등록만 해놓고 사실상 강의에 참석하지 않는 각종 대학원의 학위 논문 대필이다.

'무늬만 대학원생'인 이들 제자와 친분으로 얽매인 교수들은 다른 제자들에게 이들의 논문을 대신 쓰라고 주선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 2003년 광주 C대 K교수는 40대 대학원생으로부터 300만원을 받고 다른 제자에게 논문을 대신 쓰도록 하는 등 모두 8명의 논문 대필을 알선, 2천400만원을 받아 창간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당시 대필에 가담한 대학원생 P씨는 "지도교수의 대필 지시를 거부할 제자가 몇 명이나 되겠냐"며 "교수의 지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제자의 처지를 이용한 비겁한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학위논문 대필은 검찰이 '박사 500만원, 석사 300만원, 학사 50만원' 등 거래 가격이 형성됐다고 발표했을 정도로 고착화된 상태다.

전형적인 재탕 논문·연구용역 말쑥은 지난 1999년 불거졌다. 전남대 교수가 광주시내 두 구청이 비슷한 시기에 발주한 '조직 개편' 관련 용역을 거의 같은 내용으로 중복 제출해 논란을 불러 일으킨 적도 있었다.

이밖에도 연간 의무논문 건수에 압박감을 받는 상당수 교수들은 외국논문을 번역해 자기이름으로 제출하거나 심지어 제자들의 논문을 수정해 제목만 바꿔 낸 경우가 많다.

제자의 논문이 교수의 이름을 끼워넣는 경우도 있다. 보통 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서는 한 편의 논문 외에 두 편의 학회지 논문을 게재하는데 이중 하나는 꼭 교수의 이름을 함께 끼워넣는 것이 일반적이다.

교수는 결국 학회지 논문 게재로 얻어지는 연구업적 점수를 '무임승차'하는 것이다. 전남 D대의 한 시간강사는 "당연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상할 것도 없다"고 말했다.

박사학위를 마친 뒤 교수 임용 등에서 임금을 행사하게 될 교수의 그늘에서 자유롭지 못한 제자의 심리를 이용한 것이다. 전남지용 전국교수노조 광주·전남지부장은 "학회 차원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엔 사후에도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 金부총리 전격 사의

### 13일만에... "대통령 부담 주기 싫어"

檢, 논문의혹 수사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취임 13일만인 2일 사의를 표명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엄상현 기획홍보 관리관을 통해 "국회 교육위 회의를 통해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들이 대부분 해소됐다"며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고 싶지 않고 대 국회관계와 당청 관계에도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고 사의를 표명했다.

〈관련기사 3·4면〉

노무현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하면 김 부총리는 5일만에 물러난 이기준 전 교육부총리에 이어 역대 두번째

단명 교육부총리로 기록된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기 직전에 청와대에서 노 대통령을 직접 만나 사퇴 의사를 밝혔다. 또한 김 부총리는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가 끝난 뒤 한명숙 총리에게도 대통령을 만나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열린우리당 우상호 대변인은 이날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 "본인의 학자로서의 명예를 회복한 연후에 대통령과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용단으로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도 이날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사의를 표명함에 대해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2일 정인봉 변호사가 김병준 교육부총리를 사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무위법죄 전담 부서인 형사1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수사가 본격화하면 고발인 조사에 이어 교육부 및 국민대의 '두뇌한국(BK) 21' 담당 관계자 및 연구팀 원들, 성북구청장 등이 잇따라 참고인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이며 김 부총리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목 타는 뉴욕  
회씨 100도(섭씨 37.8도)를 넘는 더위로 뉴욕에 '폭염 비상사태'가 선포된 가운데, 2일 월렛가의 한 어린이가 소화전에서 흘러내리는 물에 목을 축이고 있다.〈관련기사 5면〉 /AFP 연합뉴스

## "이효선 광명시장 출당 등 강력징계"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

'호남 비하' 발언과 영암군과의 자매결연 일방파기(분보 2일자 1면) 등으로 물의를 빚은 이효선 광명시장에 대해 한나라당이 출당 등 강력한 징계조치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2일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지난 최고위원회의에서 탈당을 권유했는데 아직 탈당계가 접수되지 않고 있다"며 "이 시장이 계속 물의를 일으켜 조만간 당 윤리위를 소집해 다른 징계를 내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유기준 대변인이 전했다.

이 시장이 호남비하 발언으로 당 윤리위에서 1년간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는데다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탈당 권유 조치된 점을 감안한다면 이 시장은 출당 등 강력한 제재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한나라당 이정현 부대변인은 "한심한 정도를 넘어서 이 시장은 근본적인 사고 방식 자체가 문제인 것 같다"라며 "중앙당에서 출당 등 강력한 징계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임동욱 기자 tuim@

## 알림

### 일본 규슈 역사문화 탐방단 모집 8월 28일부터 3박4일 일정

초·중생 31만9천원, 고교생·일반 33만9천원

광주일보사는 여름방학 일본 규슈역사·문화 탐방단원을 모집합니다.

광주일보 규슈역사·문화탐방단은 일본 고대문화유적인 후쿠야마 고분을 비롯해 태계부원망고, 구마모토성, 아소산, 벳부 등지를 순방하며 한·일 고대사와 양국의 문명교류를 탐구하게 됩니다.

파격적인 비용으로 문화체험과 함께 규슈 지방의 수려한 풍광을 즐길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 될 이번 탐방에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탐방인원: 90명(선착순)
- 탐방코스: 광주~부산~울주~구마모토~벳부~후쿠야마~구마모토~광주
- 탐방일정: 2006년 8월28일~8월31일 (3박4일) (기타의 1박, 발라본도 2박)  
※ 탐방인원에 따라 출발일수 조정
- 탐방요금: 초·중생: 31만9천원, 고교생·일반: 33만9천원
- 참가신청: 광주일보사 문화사업국, 문의 (062)222-8111
- 주 관: (주)이트레(062)234-3222



광주일보사

## "광주문화수도 축소 안된다"

문화연대 등 27개 사회단체,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광주전남문화연대와 광주YMCA·YWCA 등 광주지역 27개 시민사회 단체가 지난달 24일 개최된 열린우리당·문화관광부 당정협의회 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특별법과 특별회계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2일 기자회견을 갖고 "당정협의회 결과를 보면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광주문화 중심도시 조성사업에 의지를 갖고 있는 지에 회의감이 든다"면서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가시화된 청사진을 제시하고, 특별법과 특별회계를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호남 소외를 극복하고 아시아문화에 슬의 메카를 만들겠다는 사업이 결국 옹두사미로 끝나 '아시아문화전당'만

지고 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까지 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 같은 광주지역 시민단체의 반발은 지난 달 24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전당 건립 일정의 조정과 도시조성 등 지역성 사업의 지방비 투자, 특별법에 명기된 특별회계 조항 삭제 등의 안건이 논의된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특히 전당 건립은 국비를 지원하겠지만 도시조성사업은 광주시가 알아서 하라는 식의 태도는 문화중심도시 사업을 전당만 건립하고 말겠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로드맵 제시, 최근 벌어진 일련의 사태에 대한 문광부 공식적인 해명 등 4개 항목의 요구 조건을 제시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후원학원 장학55% 학사만 1년  
남부대학교  
www.nam.ac.kr  
41-1111-1111 / 062-910-5000-1  
새로운 시작은 대학  
전남과학대학  
www.chunnam.ac.kr  
062-350-3501 / 062-360-5000

100년의 사랑 - 부채표  
**동화약품**

나는 시원하고 부드러운 남자!  
**가스활명수같은 남자!**

부채표가 없는 것은  
활명수가 아닙니다.

가스 성분으로 시원하게 소화시키고-  
11가지 생약성분으로 부드럽게 소화시키고-  
김동원도 가스활명수도 만능 엔터테이너답죠?

11가지 생약성분-  
부채표 **가스활명수** 큐

김동원